

여주시, 내년도 예산 1조4825억원 편성

올해보다 250억 증액 16일 의결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등 집중 지역경제 활력 회복·약자 복지 시민 안전망 강화 등 중점 편성

여수시가 2025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21일 여수시의회에 제출한다.

20일 여수시에 따르면 2025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1조4574억원보다 250억원(1.7%)이 늘어난 1조 4825억원이다.

일반회계는 148억원(1.1%)이 증가한 1조3511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02억원(8.4%)이 늘어난 1314억원이다.

시는 다가오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준비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매입 및 복지, 안전, 민생경제 등 현안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올해 본예산 대비 일정금액을 증액 편성했다.

지역 대규모 현안 사업인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와 여수만 르네상스 종합발전

계획, 2025년도 마무리 사업 등 시 역점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함이다.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 준비 본격화를 위해서는 △섬박람회 개최 지원 위탁사업비 225억5000만원 △재단법인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조직위원회 출연금 18억6000만원 △개도 농어촌관광 휴양단지 조성 20억원 △섬박람회장 주변 스마트 조명등 설치 8억원 △개도 섬어촌 문화센터 건립사업 18억7000만원 등을 편성했다.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는 △임시정사 신축 25억원 △여수오전일반산단재생사업 14억5000만원 △출산장려금 51억5000만원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7억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13억3000만원 △운수중보자 편의 및 휴게시설 설치 26억2000만원 등이 필요하다.

또 미래 성장동력 확보 사업을 위해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모도 LNG 허브

터미널) 100억원 △여수산단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사업 16억원 △공공주도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 11억2000만원 등을 편성했다.

시민중심 정주여건 개선사업 관련해서는 △관기저수지 생태공원 조성 8억4000만원 △도시가스 공급 배관 및 읍면단위 LPG배관망 구축 18억5000만원 △돌산 생활SOC 확충 20억원 △한려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15억원 △한려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계획도로 개설 6억5000만원 △출촌교차로-연화마을 도로 확장 30억원을 반영했다.

특히, 37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무선산, 자산공원) 부지를 매입할 계획이다.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 보호,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안전망 강화 사업으로는 △전남도-여수시 출생 기본 수당 18억2000만원 △여수형 청년임대주택 지원 16억2000만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

터 위탁 운영 31억8000만원 △여수사랑 상품권 할인 보전금 62억5000만원 △소상공인 지원이자 차액 보전금 10억원 △청년인턴(여수형 청년 맞춤형 인턴사업) 9억5000만원 △시민 안전을 위한 방범용 CCTV 구축 8억6000만원 △등하 꽃길 안전지킴이 운영 11억9000만원 등이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2025년도 예산안은 대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과 여수 국가산단 석유화학 입주업체의 영업실적 악화로 인한 열악한 지방세수 속에서 지역경제 활력 회복과 취약계층 복지, 시민 안전 등 시민 삶과 직결되는 꼭 필요한 사업들을 중점 편성했다"며 "시의회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본예산이 차질 없이 확정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 예산안은 다음 달 3일부터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6일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여수=이정기 기자**



'내 마음의 산타 사업' 성료 순천시 덕연동

순천시 덕연동행정복지센터와 마중물보장협의체는 지난 15일, 독거노인 1세대에 전기밥솥을 전달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2024년도 '내 마음의 산타 사업'을 마쳤다.

20일 순천시에 따르면 올해 '내 마음의 산타 사업'은 덕연동 마중물보장협의체의 특화사업으로, 수요자의 소원을 접수 받아 매월 운영되는 마중물보장협의체 회의를 통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총 166세대에 68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해왔다. 올해의 경우 총 17세대에 500만원 규모의 물품을 지원했다.

덕연동행정복지센터와 마중물보장협의체는 앞으로 지원 대상자의 욕구를 파악하고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면서, 오는 2025년에도 해당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황의성 마중물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생계형 소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취약계층의 고충을 해결하고,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마중물보장협의체가 구심점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양희 덕연동장은 "지역복지공동체 형성에 노력하는 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민관 협력을 통해 함께 소통하며 지속 가능한 돌봄이 될 수 있도록 총출혈해 살피겠다"고 밝혔다. **순천=배서준 기자**

익신초남2공단협의회 간담회 광양시, 입주기업과 소통 강화

광양시는 지난 19일 익신초남2공단 입주기업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20일 광양시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에는 익신초남2공단협의회장 조중갑 케이에스씨(주)대표, 염철호 (주)마텍 대표, 박홍철 (주)금흥기업 대표 등 10명이 참석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경기침체 속에서도 기업을 경영하시는 대표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간담회는 현장의 소리를 귀담아들을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다.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첫 단추가 되길 바란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각 기업 대표들은 정인화 광양시장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기업경영과 관련된 문제 등을 논의했으며 △공공세탁소 설립 △도로 환경개선 △규제개선 건의 △일자리 창출 △기업지원사업 건의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광양=안영준 기자

장흥군, 광주·전남 국가암관리 우수 암검진 실천분위기 조성 높은 평가

장흥군이 '2024년 광주전남 암관리사업 평가대회'에서 우수기관상을 수상했다.

20일 장흥군에 따르면 올해 암관리사업 평가대회는 전남도와 광주시가 주최하고 광주전남지역암센터가 주관했다.

평가는 광주시 5개구와 전남도 22개 시·군 보건소가 제출한 암관리사업 수행에 관한 우수사례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1차 서면심사를 거친 후 2차 현장발표 심사로 최종 6개 기관이 경합을 펼쳤다. 공모분야는 △국가암검진사업 △암예방사업 △재가암환자관리사업 등의 분야다.

장흥군은 국가암검진사업 분야에서 '암검진을 가까이, 암예방에 더 가까이'라는 비전을 내세워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암검진 실천 분위기 조성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들의 검진 동행 서비스 및 유관기관의 연계체계 강화를 통한 검진 수검률 향상도 긍정적 평가 요소로 반영됐다. **장흥=김전환 기자**



보성군 조성면은 지난 19일 동절기를 앞두고 저소득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를 실천했다. 정인숙 조성면장과 자원봉사자들이 취약계층을 위한 연탄을 배달하고 있는 모습. **보성군 제공**

보성군 조성면, 취약계층 '사랑의 연탄 나눔'

보성군 조성면은 지난 19일 동절기를 앞두고 저소득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를 실천했다.

20일 보성군에 따르면 이날 연탄 봉사

활동은 (사)따뜻한한반도사랑연탄나눔운동 보성군지부(위원장 선행수) 주관으로 조성면 이장단, 의용소방대, 복지기동대, 희망드림협의체, 직원 등 30여 명이 참여해 취약계층에 연탄을 직접 배달했

다. 이에 난방비 부담이 큰 저소득 가구 중 연탄에 의존하는 7가구에 가구당 300장씩 총 2100장의 연탄이 전달됐다.

정인숙 조성면장은 "추운 겨울을 이겨낼 수 있는 따뜻한 조성면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따뜻한 이웃사랑 실천에 같이 힘 써준 봉사자들에게 고맙다"고 말했다. **송민섭 기자**

순천시 '일류순천 미래비전 수립 정책 경연대회'

시대 과제 대비한 정책 소개 6개팀 우수 정책팀으로 선정

순천시가 지난 19일 '일류순천 미래비전 수립 정책 경연대회'를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20일 순천시에 따르면 이번 경연대회는 기후 위기와 지역소멸 등 시대적 과제를 대비하고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자리로 △미래산업 △혁신농업 △의료 △시민복지 △도시공간 △기후환경 △안전교통 △문화도시 △관광 △교육 △메가시티 등 11개 분야의 다양한 정책들이 소개됐다.

앞서 시는 지난 7월부터 4개월간 분야별 공무원 67명을 선발해 TF를 운영했으

며, 정책 내실화를 위해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비전과 실행력을 모두 갖춘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분야별 주요 정책으로 혁신농업 분야의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지정(스마트팜·향·농식품·반려용품·유통 등 5대 산업 연계), 교육 분야의 생태칼리지 설립(생태전환교육 운영), 의료 분야의 필수 의료 지원체계 구축(의료지원재단 설립, 의과대학·대학병원 유치) 등이 제시됐다.

또한 전 세대를 아우르는 영투백(0 to 100) 돌봄, 체류형 관광을 위한 권역별 마을호텔 조성 등 지역발전을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도 제안됐다. 이 시대 새로운

화두로 떠오른 인공지능(AI)으로 제작된 이미지·음악·목소리 등을 발표에 활용하는 미래 행정의 모습도 눈길을 끌었다.

이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의 공정한 평가를 통해 '혁신농업' 분야 등 6개 팀이 우수 정책팀으로 선정됐다.

정책 평가에 참여한 한 심사위원은 "최근 타 광역지자체 정책 제안 심사를 했는데, 순천시 공무원들의 역량과 열정이 훨씬 뛰어났다"며 순천시의 밝은 미래 모습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다.

시는 이번 경연대회를 통해 2030년 실행계획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지속적으로 시정에 접목하며 연동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순천=배서준 기자**

미혼남녀의 건전한 만남 주선 고흥에(愛) 솔로몬 봉사단

고흥군은 지난 19일 포두면 파티아에서 '고흥에(愛) 솔로몬 봉사단'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20일 고흥군에 따르면 '고흥에 솔로몬 봉사단'은 만남의 기회가 적은 미혼 남녀들에게 자연스럽게 건전한 만남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행사로, '솔로멘딩 그대에 게 고(GO)'와 '청춘맛남 식당' 프로그램에 소상공인, 기업체, 농수산업, 공무원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청년 32명이 참여했다.

올해 마지막 만남 행사인 이번 성과보고회에서는 1년간의 활동을 되돌아보고, 커플 매칭을 위한 프로그램과 친환경 유자 수제 비누를 만들어 영남면과 과역면에 있는 그룹홈에 전달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지난 2020년부터 진행된 고흥에 솔로몬 봉사단에서는 두 커플이 결혼에 성공했으며, 올해에는 공식적으로 두 쌍의 커플이 성사되는 성과를 거뒀다. 또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여러 쌍의 커플이 탄생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도 전해지고 있어 조용한 응원도 이어지고 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한 청년은 "다양한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는 인연을 만날 수 있어서 좋았다. 커플로 성사되지는 않았지만,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 즐거웠다. 내년에도 꼭 참여해 좋은 짝을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고흥=심정우 기자**